

1953년 8.15 열병식에서 연단에 오르신: 최종학 대장, 리영호 해군 중장
중국지원군 사령관 팽덕희 장군, 한일무 항공 중장.

1.

31

15



최종학 대장

최종학 선생은 1908년 3월 14일에 다반
군 재피거우 촌락에서, 빈농민의 가정 장남으로 태
여났다. 이 다반군은 원동변강 최고도 해변강에
서 품 들어진, 씨호테아린 산맥 산기슭, 무뿌리썸
림 중심부에 위치하였다. 지리상으로 볼때에 두대
산골이라곤 인정할수 있으나, 조선 시말혁명후 원동
에 쓰베흐 주권 설립 후쟁 시기에 있어서도 어극중
대한 역할을 하였다. 어곳에 벨라치산 대부대로라 크시
아 대 혁명군들이 자기 역량으로 집결하여 가리고
제정 러시아 백파군과 알제 혁명군들에게 최명적
타격을 주고 전제 원동 변강을 해방할수 없었던것이다
1920년 즉 최선생이 소학을 졸업하는 해에 최
선생의 부모들은 재피거우 촌을 떠나서 한인들이
대대적으로 집중하여 살고있던 북한 국경지
대인 연흥영에서 얼마 떠라 지리 아니 한곳 보브
씨베흐 주역 시지리 농으로 어극하여 왔다.

1

시지미촌 이사하여 문후 최선생의 부모들은 계속 농사에 종사
하고 최선생은 초중에 입학하여 1923년에 초중을 졸업하였다.
시지미 촌에는 고중이 없고 고중은 전 백사에는 구역 내에
다만 한글 즉 백사에는 구역 행정 중앙 도시인 크라쓰끼고
에만 있었기 때문에 최선생은 1923년 봄에 그 도시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원동변강에는 한민고중
이란 다만 3곳, 즉 백사에는 구역 중앙 도시 크라쓰끼고,
원동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 블라지 보스도크, 및 하바롭
스크 등 세 곳이고, 원동에 단 하나 밖에 없는 한민사범
전문학교는 노왕령에 있었다 (현재 어른시 명칭은 무츠키
스크 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아직 한인 사학은 없었기 때
문에, 공부를 계속하려는 목적을 품은 사람들은 모두 다
러시아의 중앙지대인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현재 레닌그라드)
르부그, 그릴지 아니면 키예프 (우크라이나) 시에 가곤 하였
다. 이 시기에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가정
에서 탄생한 최선생은 대학에 합격 될수 없는 고중생이
은 노유했지만 경제 형편으로 인하여 유학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 부모들이 제신 시지미 촌에 돌아와 부모들의
농사 일에도 방조하여, 농촌 공회회 사업을 준 공회회 지도
하에서 조직진행하였다. 본래 언변도 없고 청년군중들 중에서
사업조직 집행 수단과 위신도 방불하여 1928년 북러노군
공산청년회 책임적 지도원으로 임명되어 1929년 까지
일하시었으며, 최선생의 대중조직 능력 및 상부 지령의
집행 능력과 그의 기동성으로 본아 앞 권망있는 당 간부
될수 있음을 판명한 백사에는 군당 위원회는 최선생을
원동 변강의 주도 하바롭스크 공산대학에 공부하러 파
견하였다. 1932년에 공산대학 공청회 부를 출품한 성적은

로 졸업하였다. 1928년 드디어 조선공산당은 농촌정리
 단합화협동화 정책을 시작하였으나 그 정책은 전인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아주 미약하게 진행되었지만, 어쨌
 씬은 농지 몰수정책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부분적 지방에
 서는 반대파들이 협동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당
 단체 대포자들을 살해하면서 협동화 정책에 반대
 한 역행을 풀려하였다. 이러한 형편을 고려
 하여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협동화 정책을
 더 강하게,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하여" 한 결정을
 채택하고, 그에 근거하여 대 군들에쓰기게 임명소기를
 조직하였으려, 그 임명소들에 정치부를 조직하였었다.
 이 정치부들을 지르하기 위하여 당중앙은 3200여
 명의 준비된 공산당원들을 그 정치부의 지르자들로 임
 하여 내어 보내었다. 바로 이무렵에 공산대학을 졸업
 한 최선생은 위로실로브 주한 가이구역에 새로 조직
 된 기계 임명소 정치부의 공산청년회비서를 임명하여
 일하게 되었다 그후 최선생은 1934년 북에 시작하
 여 한 가이구역당위원회 책임 지도원으로, 또 얼마
 후에는, 1936년 - 1937년 사이에는 군 당 제 3비서
 큰 원인으로 북에 한인들이 강제이주 당시까지
 일하시었다. 강제이주 당시 최선생은 부모들과 함께
 호레눔주 구루렌구역 우르베크 공화국에 도착하였다. 새로
 실려온 도착지는 집이 몇개 보이지 않는, 아주 거스런 갈
 밭만 보이는 스산한 농촌 지대였다. 최선생은 자기가
 장차사라갈^길도 불문이지만, 같이 실려온 조선동포들의

을 영을 위하여서도 속속 무책하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군당 위원회에 찾아갔다. 군당 위원회는 아.삼 잘 찾아왔다고
 칭찬하고, 금일 즉시부터 군당 책임지도원으로 이주민들을
 조직적으로 각 농촌 별로 분배 이동시키고, 비어있는 각종
 목화 건조실, 허칸, 학교, 등을 수리하여 월동 준비를 하게하는
 한편, 원주민들의 집이 두칸이면 한칸씩 내어 우선 어린아이
 들과 늙은 노인들이 있는 집들을 배치하고, 그 외에도 모라
 라는 젊은 세대들은 당꼴을 파고 반호클락들을 짚어
 월동 준비를 하였다. 지방 당 단체는 최선생을 만난 것
 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1938년 정초부터 최선생
 을 구루렌 구역당제2 비서를 임명하고, 새해 농산
 준비를 대대적으로 시작하였던바, 본래 원릉에서
 당공형 조직사업에 능숙한 최선생은 각 농촌 별로
 협동조합들을 조직하게 하고 그에 능숙한 활동가들
 을 선발하여 위원장들로 배치하는 한편, 자기가
 일하고 있는 군당을 통하여 새해에 심어야 할 각
 농산물 씨앗, 농산기계, 운수기재 등을 중앙정부
 에 요청하여 신속히 해결을 받게 요청하였던 것이다.

새 당에 강제이주당하여온 한 인들은 호레슴주 구루렌
 구역까지 도착하여서도, 또 도착하기전 도중에서
 도 흔히 어린아이들과 늙은이들이 많이 죽었다 1938
 년 봄에 허리 화풍은 시작하였으나 특별한 가족들은
 전답에 씨앗을 남지 못하고 병든 아이들과, 복본들
 을 시종하고 있는 형편에서 신속히 나가 원가족이
 고향 불집으로 있었다.

그러나 생의 범이란 아주 궁하여 빛 따름은 제대로 한집에 서는 가뜰에 가서 아주 훌륭한 수확을 걸어가 시작 하였다 황후지 갈밭에 처음 따놓은 벼농작들은 60-80 쉐타의 수확을 (160 석까지) 주었으며 그중에서 "기간느" 와 "레 3 인허 나치오 날" 협동 조합들은 기적적인 수확을 얻어 전련병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특별히 강레 어 주민들은 국가 기질정에 의하여 3년간 국가 곡물수내에서 해방되어 막대한 수확을 걸어 잘 살게 되었으며, 38천로 북허 국가의 대부분로 살림집들을 대대적으로 시작 하여 건설 하였다. 이때 북허 시작 하여 1938년, 1939년, 1940년, 3년 동안 수다 한 고려인들의 협동 조합들은 자기 경리들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취세하게 되었다. 이 어 주민들이 생활 질서를 확립하고 협동 조합을 견고한 길로 향하는 일에서 최선 생의 역할은 아주 막대 하였다. 최선 생이 조직한 사업 수단과 조직 능력으로 보아서 벌써 오래전 북허 군당 제 1에서 자리에 올라설 준비는 되었으나 아직 제 1에서 자리에는 선발 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 - 즉 1940년 초에 우즈베크 공산당 중앙의 파견을 받아 모스크바로 공부하러 떠나게 되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선 생은 1940-1941년, 2년 동안 외국에 파견하는 경찰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도중 모스크바 소련 최고사령부 총정칙국에서 봉환하여 당시 레닌그라드, 5월 22 일 산-베르데르 부르크로 공부하러 보내었다. 이곳에 도착하고 보나 많은 한인 기관들이 군복을 입은채 특별군에서 한인들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최선생은 최후에 알고보니, 소련 정치총국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벌써 이때에 조선반도를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서 해방하면 평양에서 한민어로 "조선 ~~신보~~" 신문을 발간할것을 계획하고 레닌그라드에서 그 간부들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최선생은 이 특별조에서 공부하고 있던 노좌강 미하일 (최후 북한에서는 강노좌로

- 불렀음) 흐센 왈렌진, 막 왈렌진, 린 봉길, 최아나 돌리 (민인군대 조직 창시부처 동족상잔이 시작되는 날까지 민인군 후방 농공장 역을 지내었음) 시인 조기천 등 동지들과 만나게 되어 같이 공부하였으니, 최후 북한에서 장기간 같이 사업하게 되었다. 평양에 도착한 최선생의 일행은 계획대로 소련군 공작유르 사노복 동지를 총지도자 겸 주필로 모시고 "소베트 신보"란 신문을 한국어로 1945년 10월 중순부터 발간하며 전북한에 무효로 배포하여, 발동하였다. 8월에 해방된 북한이 5-6개월 지나 1946년 2월이 되자 소련으로 부터 많은 기술자, 지식인들이 북한에 파견되어 (폴란드 극립공화대학 고성부 선생이 딸들한 자리에 의하면 약 438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소베트 신보"사의 사업은 아주 활게 되었다.
- 조선속담에 맨들은 석우쟁이 만들어야 한다고, 신문은 신문쟁이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소련군대에서 특별히 준비한 "소베트 신보사" 일군들보다, 일생 소련에서 신문만드는 일에 능숙한 많은 언더티들이 신문사 일을 많이 활게 하였으며, 그외, 지방 기존 신문들에 많은 지도적 방조를 주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직접 지도자 - 다시 말하면 주필을 임하였다.

7
소군 25군단 정치부와 인민사령부는 이 신문사에서 조동
식 할수 없는 많은 준비된 간부들을 기쁘한 다른 사업계통에 분
겨 놓았으므로 사업이 험하게 되었다. 신문사에서 해방될 양
은 간부들은 주로 출판물 검열국에서 일하게 되었다. 25군단
정치부는 북한에서 출판되는 모든 신문, 잡지, 책 등, 라디오 테이프
프로그램 등이 전부다 출판물 검열국을 통과하여 실수를 방지
할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이 불화선전 계통에 자본주의 어제를
로기의 침투를 방지하는 대책이었다. 최선생의 일행 중에는
조선말을 얼마나 할수있도록 준비된 러시아 연도 2명이 하
있었으나 (소모브와 그리그리예브) 이 둘도 조선말을 러시아 말
번역하라면 전혀 명수였지만, 러시아 원문을 갖고 조선신
문 기사를 쓰리엔 아마 숙련된 제 조선사람이 쓰는 기사 가 어
느면으로 보던지 낯은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이 사람들
도 전부다 출판물 검열국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하
를 최선생은 조선인민군대 정치간부로 조동리여 자기 병에
맞이 막날까지 있는 법을 다하여 연변에게 충실하게 복무
하였다. 1946년 2월에 "소베트신보사"에서 조동리여 새
로 조직된 조선인민군 제2사 정치부장 겸 부사단장으로
1948년까지 계시다가 다음 다시 조동리여 조선인민군
제1사 정치부장 겸 부사단장으로 계시다가 동족 상잔이
시작 되기 직 직전에 전선 정치부장, 1950년 12월부터
전선의 동북전선과 서북전선으로 분단리와 최선생은 동북
전선 군사위원, (당시 서북전선 군사위원으로는 작은김일

이 임명되었다. 최선생은 동족상잔의 시작이던 훗날부터 총 8, 정치국 국장으로 조동원 1953년 2월까지, 즉 동족상잔의 3년 동안은 내내 전선에서, 야전 조건하에서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정치사상의 순결성, 당과 정부에 대한 충실성, 나아가서는 전제 인민에 대한 현실성의 정신으로 교양함에 자기 힘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였다. 그때 당시에는 최선생도 장차 북한 조동당이 변태하여 김일성 독재당으로 자기 북자당으로 변화하고, 세습제도로 전향하면서 김일성에게 갖은 충성을 다한 자기로 이 자리에서 철직, 제대 식의 농촌에 유형시리 보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총정치국 국장으로 계시시 최종학
조선인민군 상장.

1951년 3월부터 전지권으로 넘어간 전선 전후경계선은 고정 불변으로 1953년 6월까지 계속 되었다. 전선에 동원된 사병들은 모두다 장기간 전쟁에 염증이 남으며, 가정산림사리에 고적을 느끼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인민군대 내 당정치 교양사업은 배가로 허약하게 되었다. 그것은

만일 사상에 투철은 군관들은 유류, 후권을 잃었었고 사병들은^{9.}
부로 처사가 그리워 도주사건의 빈번하였던데, 주변 논란에서
의 강간 사건의 종종 일어났다. 군언이란 항상 전후대
세를 보전하면서 전후대세의 변동이 동반되어야 전후대
를 세워 줄 수 있는 법인데, 이것은 매일 같이 한곳에 압박하
고 있다 보니 한곳에 살고있는 동네 사람이나 군언이나 할 것
없이 전후대 한층 동거하여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환경
에서의 장병들의 사상교육사업, 전후대세를 보전하기 위한 사
업은 대단히 힘들었다. 그러나 혁신행은 무슨 힘을 다하여 일을
잘 조직한 결과 대성리를 얻어냈는데, 1953년 3월에는 자
기가 벌인 사업을 김철우 소장에게 인계하고, 총정치국장
으로 계시던 김재욱 중장이 평안도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다음 조선연립군 총정치국장으로 영전되어 있다. 터구
나 이상에서 지적한 여러가지 환경 외에 벌써 3년
새끼고 계속되는 정전단판 회의도 장병들의 사상동태
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문제는 끝까지 전쟁
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면 전후대를 버리고 제
각기 집에 들어가 평화로운 생활을 할 것인가에 있
었다. 이런 환경에서 연립군 총정치국 사업은 비할 바 없
이 힘들었다. 총정치국은 전후대 장병들의 사상동태에 대
하여 책임지면서 작기가 지르하는 중대내 당, 민청단체
와 매국 인차식 진행되는 정치상황을 통하여 전후대 병

사장령들의 정신은 당중앙이 요구하는 수준에 제고되어야 하였다.
 벌써 수년간 각 계단을 밟아 올라오면서 엄청난 정치사업을 지르
 한 최공화위 상장에게는 별로 두려운 것이 없었다. 사병들의 만일
 무사 사상과 적극적으로 투쟁하기 위하여 최장군은 총정칙내에
 고령 검열위원회를 조직하고 대월 각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까지 내려가 사상교양사업을 검열하여 계단별을 편제
 에서 총화 정교, 벌써 만일사상에 무적은 군관들은 고등석에서
 집단군이나 전선사령관과의 협의에서 제대설직까지 지시했다.
 그와 병행하여 각 사단 집단군 등에서 군대내에 예술사업을 장려
 하면서 협주단들을 조직하여 주기적으로 순회적 공연을 강화
 하면서 군대내 움어있는 장기를 숙출하여 적용하면서 계속발
 전시키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전인민군대내에서 아주기
 술이 으뜸가는 예술인들을 중앙예술 협주단을 조직하여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소련 정치총국의 지지를 받은후 각
 형제국들인 체코, 웨그리아, 독일, 폴사, 몽고, 중국, 월남
 등 나라들에 순회시-"사실적 사회주의 예술교향"이란
 이름으로 "자기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피와 목
 숨으로 그를 사수하는 인민군 예술단"이라고 전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명목하에 북한이 우수한 예술인재들을 세
 계에 자랑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일군들중
 에서 일괄하여 사상이 건전한 인재들을 포함, 장려
 하는 의미에서 각 형제국들에서 진행되는 당, 민형
 선진 일군들과 여성대회들에도 인민군 대표들은 배합되어

속출하여 파견하고 또 그들의 귀환 보고는 각구분대별로
 횡횡하고 호를하게하였다. 인민군대내 당정회사업은 최종학
 상장이 임명되자 비교적 잘리여 갔음으로 최종학상
 장은 대장으로 승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이
 였다. 사상검토사업으로 인하여 북한이 건전한 노동당원
 들이 수만명이 처단, 검거, 유행사리로 망하기 시작하자

1955년 경호부하 인민군대내에서도 사상검토사업을
 시작하라 김일성은 지시하고, 인민군대내 사상검토사업은
 북한에서도 반노사상거두인 김창만에게 위임하였다 김창만
 은 이것을 허락하고 김일성에게 자원적으로 제의하였다,
 김일성은 김창만의 복수는 모르고 그대로 승락하였다.

김창만 이는 인민군대내 사상검토 사업을 먼저 반연안파
 방향으로 돌리려하였으나 반연안파 운동은 벌써 김일성 각신
 의 지도하에 1954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창
 만이는 이 방향에서 좀수정하려하였으나, 김일성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손을 대수없이, 반노방향에 주력을 돌리면서

최종학 대장에 대한 재료를 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
 였다. 우선 간부 배치 경험 부하 시작하고, 소련 정치일꾼, 즉
 소련 출신 정치 간부들이 일하고 있는 곳부터 먼저 시작하여
 검열 검토사업은 시작하였다. 동부전선 군사위원 - 김철무,
 서부전선 군사위원 김인(강은김인), 1군단 천을, 2군단
 김학천, 정치군관학교, 항공사령부, 총정치국 등을 병합

뒤번지였다. 김창만이는 본래 평안파로서 김일성에게
 신용있게 등용된것은 단하나이었다. 그러나 김창만은 그
 이상 더 높이 등용되려하였으나 해방소련 출신 간부들이 그
 의 야망에 방해를 주었다. 중앙당 선전부장으 기뻐하였
 을시 박창욱이 길을 막았으며, 중앙당 부위원장에 들어야 할
 때 허가이가 그러하였으며, 홍경치국장에는 최종학이 역
 세 길을 막았다. 그 외에 최종학에게 ^{한하여서는} 개인적 야심이 있
 었던바 그것은 김창만의 복인이. 옛날 즉 1945년, 즉
 소련군이 금강 평양에 입성하였을시, 조선반도 해방자
 최종학 소련군 대위를 잘고지내었다는 것이다. 잘알고
 지내었다는것은 아무런 불제도 안되려만 반소거두 김창
 만이는 이로 인하여 신경을 많이 썼다. 대대들에 여러 친구
 들은 모르고 있던 불제를 더 광범히 알게 되였으며, 그
 불제가 사실상 면제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다만 "소
 베트신보사" 사업에 국한되는 일이라고 결론 정었다.
 최대장은, 1956년 1957년에 들어서면서 인민군대
 내 사상검토 사업이 강화게 진행되자, 또 사상검토
 전쟁목적의 반소목적이며, 반소련 출신 간부들이었고,
 하였기 때문에 김창만 반소 집단의 조직적공격을
 받기 어렵었다. 이 김일보사 재검에는 최고 피고자의
 이름은 소련 출신 간부들이었다. 이때 김일성은 어디서나

소련 출신 간부들은 권부다 제거하려는 계획에, 원위군대
 단계가 맞먹는 단계였다. 김일성이든 어떻게 되게 해서
 들어온 간부들은 문화적으로 - 남한, 중국 연안, 소련 맞기
 다 다른 나라들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온
 오랜 노공산당원들을 동당청산하고, 북한에 유효한
 김일성 부자가 지도하는 민족적 독재주의 봉건적 세습
 제도에 가져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김항만
 반소 집단 검열원들은 원위군대 조직 이후 10년 동안에
 있는 일, 그중에서 3년 전쟁 기간, 진공, 후퇴, 또 진공
 후퇴, 한바다로 말하여 그동안에 있는 모든 불결한 일,
 모든 위법적이며, 조선 인민의 품속에 거슬리는 일까지도
 권부다 원위군대에 당정치 사상교양사업의 목적 지향
 성없이 진행될 원인으로 각인하고 김일성에게 최종학
 대장을 현직에서 철직 제대할것을 요구하였다. 김일성은
 바로 그것을 기각하였던바, 어프러진 비비결이나 한바고
 사상검토 진행, 총결적 검열을 높이 평가하고, 최종학
 대장은 1957년 중순에 철직 제대하여 가정 두들으로
 풀려났다.

최종학 대장을 철직 제대하던 장면을 간단하게
 기록하려한다. 최종학 선생은 현직에서 짚거나 개혁강급
 을 당하고 있는면서 1958년 5월 27일에 소련으로 귀환할
 준비를 다하고 있는 전방총위원회 위원장 남봉식 선생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식사에 초대하였다. 남흥식 선생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녁 식사 전에 최선생의 사택에 찾아갔다. 서로 인사가 있은 다음 남흥식 선생은 최선생에게 물기를 - 반당 종파활동자가 이렇게 선생님 사택을 찾아봐도 괜히 앓음니까? - 하곤 물으니, 최종학 선생은 대답하기를 - 나야 언제 다 죽은 옥중에, 무얼 겁나는 것 없소 - 하였다. 그 때에 남 선생은 - 최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해서야 되겠소?, 그래도 다시 노생할 길이 있거지 - 하여 최선생을 만류하였다. 이렇게 남 선생은 최선생을 위안하여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 최선생은 사상 검출 사업에 진 경형을 말하다가 막이막 총결군사 위원회가 진행되던 정 형을 간단히 말하시겠다고 하시었다. 최고사령부 군사위원 회는 최용권 민족보위상이 위원장으로 진행하였던 바 그 에는 김일성도 참가하였다. 사상 검출 진행 정형 결과 기분 보고는 김창만이 장시간 하면서 총정칙국 사업에 대하여 역설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양의와 독성을 다하여 보고서가 아니라 불결한 오물통 공담이로 야해하게 공격하였던 기분 보고가 끝난 다음 위원장은 총정칙국장 최종학 대장에게 언권을 준다고 선포하였다. 최 대장은 몇일 동안 준비한 보 고문을 들고 연단에 가까이 가서 보위상 최용권어는 자기 부관 대위에게 명령하기를 - 저놈의 보고를 들은 것도 없으니 전장을 잡아 데려와 - 고 고함 질렀다 고소되자

떨어지자 근판 대위는 300여명 근판 장령들이 돌인관청
 복에 전장을 잡아 떼었다. 그 다음 최용권이는 다시 —
 그놈의 무곽의를 벗기라고 — 또 소리쳤다. 소리가 떨어지자
 부판은 달려들어 또 상의 베풀었다. 이렇게 최대장은 혼식
 강에 대장으로 부쳐 혈을 뽑아 놓은 안락모양으로 관공
 앞에 서서 인간의 최하 위치와 학대를 받았으며 열씨
 를 당하였다고 하시었다. 최대장은 한생 이후 50여년
 을 살아 오는중 20여년간 여러가지 직위에서 일하시었
 으니, 열씨와 학대를 받은 소련의 한인강제 어부도 당하였
 지만, 이렇게 북한로동당이 계획하고 그다 실시한 정책하
 에서 직접 그 정책의 피수인 김일성의 폭력하에서 받은
 학대와 열씨는 그 무엇에다 비할바 없는 열씨며, 인간의 최
 하바닥 열씨, 다만 김일성과 같은 "어배어" 만이 꾸려낼
 수 없을것이다. 이렇게 속내의만 입고 재 판장에 끌려온
 적인처럼 군사위원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서있고, 앉아
 있는 최대장은 그 회의 즉석에서 최용권의 "헌직에
 서 철직하리, 인민군대에서 제대한다"는 결론을 듣고
 집에 돌아와 최대에 늪에서 앓기 시작하였다. 이 막대한
 계획을 조작성한 김형만은 큰 승리나한 대장처럼 또
 다른, 또다른 소련 출신 간부들을 꺾기위한 흥계를 계속
 꾸리고 당중앙에 계속 백여 있으면서 김일성에게 아첨
 하였다. 이 아첨쟁이는 최대장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량 추지 않았다. 최대장에게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장남 최아파나씨는 조선 모스크바^바경제대
 학 제 4학년에서 재학중이었다. 김남만은 교육상에
 게 명령하여 반인민, 반당종파분자의 아들 최아파나씨
 를 즉각 모스크바에서 불러내오게하고, 내무상에게 지
 시를 주어 최아파나씨가 평양에 도착하면 평양역
 전에서 체포하여 감동 권외범 수용소에서 살게하라고 지
 시를 주었다. 당중앙 선전부장의 지시라, 물제는 그대로
 집행되었다. 1958년 2월 가을에 경제대 4학년 재학
 중이던 아파나씨는 아무런 재판도, 송고도 없이 권외
 범 수용소에 도착하여 강제노동에 하게 되었다. 상관들과
 그 원인을 헤아리며 달라고 하여도 누구도 헤아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인권도, 자유도 법도 없는 나라에서 아득
 천명문도 없이 계속되는 생활을 하거란 곳바다에서
 쪽배를 타고 목적없이 어디론가 가는 것과 미치한가
 자였다. 모스크바 대학생 고급 클럽이란 문화수준에서 강
 제수용소 사리는 참 처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였다. 이
 렇게 일년동안 고생하면서 결심하기를, 길은 딱 두가
 지 길,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도망치는 것이었다. 죽어
 하나, 22세 나이에 어떻게 거저 죽을 수 없었다. 도망
 치면 어디로 가면 산다 말인가? 북한 전체가 아련

개관인데, 어디로 가면 살수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중 화륜은 화물자동차가 평양으로 식량하역 간다고하
 는데 운수로용자를 가라는것이였다. 본래 만성충한 아파나씨
 는 화물차 운전사 타고 아귀신한 사이였다. 평양시에 도착하
 자 아파나씨는 운전사더러 북악히리를 노련대사관 곁으로
 지나가라고 하였다. 아파나씨의 목적을 모르는 운전사는 바로
 노련대사관 곁으로 지나가게 되였다. 이때에 아파나씨는
 눈치있게 자동차 운전대에서 뒤여내터 대사관 출입문어
 구에 서고있는 보초병을 일고 그 안으로 뒤여 들어가면서 어제
 곳 나온다고 하였다. 대사관 안에 들어간 아파나씨는 명사관
 사무실을 찾아가, 아무런 노트도 없이 명사 앞에 다가서면
 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였다. 그때에 명사는 눈이 뜨글하게
 지면서, 그 명문을 물었다. 그때에야 아파나씨는, 어제 살
 때를 만났다고 자기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자기를 노련
 데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렇지 아니면, 자기는 어제 이슬하
 리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고 말하였다. 명사는 대사관
 들어가고 아파나씨를 뒤시방에 갔다가 옮겨 놓았다.
 그 몇은후 아파나씨는 무사히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자기
 친척들로 만나고 일들하니면서 야간을 리용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장가를 들게 되었다.

이 어후 얼마지나가 최종학 선생이 건강이 좀 쾌하
 게 되자 당중앙은 최선생을 함경북도 길주 파르프
 공장으로 지배인 직위에 파견하였다. 김일성은 최선

생을 생각하여서 보다, 최선생을 중앙에서 부하 현주현 지역에 파견하여 거기서 경제사태하다 죽으라는 것이었다. 최선생은 길주에 내려가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당분간이었다. 아파나씨가 도주 하여 농원에 갖다는 소문은 내지 않았으나 당 중앙은 잘 알고 있었다. (현저년에는 아들이 부친의 일 때문에 강제 수용노 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의 "죄" 때문에 길주 팔도공장 지배인 직무에서 드물적 당하여 1960 년도 부하 보흥부기부 출납부장 직무에서 일하시다가 1961년에 53세의 생애한 농원에 길주에서 별세하였다.

최아파나씨는 현재 조국 민주평화통일 구국전선 사무총장으로 거세게 활약하면서 모스크바에서 거주하고 있다. 최 아파나씨는 조국통일의 그 날을 하루속히 앞당기기 위하여, 하루속히 금주리고 무법천지에서 헤매고 있는 북한인 형제 자매들을 해방하여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의 시민으로 또다시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것을 위하여서는 구국전선 중앙이 지시하는 대로 북한의 경제를 사실 그대로 백일하에 폭로하여, 북한이 자랑하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무법봉건적 세습제도에, 자기 친척들과 가문의 환계없는 복기와 명화, 인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공산주의 변태주의라는 것을 전세계 인민

19.

인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재 아파나시는 로런
"이스베스지야" 신문사를 통하여 구국전선 신문을 큰
형식으로 일사불기에 한장씩 책으로 출판하여 구소련
각 공화국들에 보내어주고 있다. 이에 말바침하여 현재
남한 통일문제 연구소에서 출판하여 소련 각 지역들에
배포하여주는 "오늘의 북조선" 책과 테이 테이프들을
제대로 받아 구국전선 성원들에게, 또는 친척한
인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는 사업들을 시기적으로
지르길 위하여 크나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97. 11. 16 일. 모스크바에서.